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봉사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는 10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거동이 불편한 홀로어르신 5가구를 방문해 반찬을 배달했다.

이날 회원 20여명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양이 듬뿍 담긴 고기와 보양식 등을 배달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다.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사랑나눔 밑반찬 나눔봉사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황승일 회장은 "어르신들의 영양 증진과 함께 홀로 사시는 분들의 안부도 함께 살피고 집밥의 따뜻함을 느낄수 있도록 메뉴개발을 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봉동농협, 여성농업인에게 '빵과 장미' 선물

봉동농협(조합장 김운회)은 지난 8일 제11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봉동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원복순) 회원들에게 깜짝 이벤트로 '빵과 장미'를 선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운회 조합장은 이날 오전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마친 농가주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빵과 장미'를 선물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농가주부모임 원복순 회장은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며 세계 여성의 날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기념하는 날인만큼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농가주부모임'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안전한 전주시가 되기를 바래"

서전주로타리클럽, 주거취약계층에 '휴대용 소화기' 기증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박지원)이 전주지역 주거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후원했다.

서전주로타리클럽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지난 8일 엽순근린공원에서 비주택 거주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휴대용 스프레이형 소화기 100대(160만원 상당)를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서전주로타리클럽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독거노인 등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외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이날 전달받은 100대의 소화기를 상담을 통해 발굴된 지역 내 비주택 거주지와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에게 전달하고, 휴대용 소화기 사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박지원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장은 "이번 휴대용 소화기 전달을 계기로 취약계층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전주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전북 남여 족구팀, 전국대회 동반 준우승

전북 남·여 족구팀이 전국대회에서 동반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10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기원 족구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남·여 일반부 경기에서 동반 준우승했다.

남자 일반부 경기에 출전한 전주천후팀은 대구와 부산, 충남 대표팀을 만나 차례로 물리친 뒤 결승전에 진출, 경남 대표팀에게 아쉽게 패했다.

또 여자 일반부 전주하나여성팀은 세종시와 인천, 경남 대표팀을 이긴 뒤 결승전에 올랐지만 울산 대표팀에게 1대2로 아쉽게 석패했다.

한편 고등대학부에서는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남여 일반부 동반 준우승으로 전북은 종합성적 3위를 했다.

전북족구협회 관계자는 "일반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고등대학부의 경우 자원이 부족하다"며 "전북 족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학생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신동상가번영회, 협력과 상생의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

전주시 서신동 상가번영회(대표 이광우)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인 이마트 전주점과 공동으로 '서신동 상가번영회와 이마트 전주점이 함께하는 동반 행사'를 연중 추진한다.

이 행사는 서신동 상가번영회 30개 회원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마트 전주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로 올해 말까지 계속 추진되며, 지역의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광우 서신동상가번영회 대표는 "그동안 영업제한 등으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을 기대하고, 지역의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시민들이 골목 상권을 더욱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신동상가번영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는 꿈(Dream)을 주제로 지역 상권에 소비 활력을 불어넣고자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에 참여해 전년대비 30% 이상의 매출 상승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서신동상가번영회의 이번 협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고 주민과 상인이 주도하여 추진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앞으로 골목상권과 대형마트의 상생과 공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부안군 농협, 법인제휴카드 기금 전달식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3월 10일,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로부터 법인제휴카드 기금 4,900여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지난해 부안군청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에 따라 적립된 것으로, 부안군은 NH농협은행과 업무 약정을 체결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해당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부안군은 적립금을 세입처리 후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며, 소모성 경비 지출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해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달식 자리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 사용된 소중한 예산이 군민을 위해 다시 활용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농협 은행이 지역 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삼형 농협 부안군지부장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2022년 남원명품농업대학 입학식 개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전문농업경영인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제13기 명품농업대학을 지난 8일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입학식 및 마케팅 교육을 진행했다.

남원명품농업대학은 2010년도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총 167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 입학생은 총 95명으로 3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교육을 진행해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된다.

약선음식반은 남원 전통음식 발굴 및 지역 식재료 활용 교육으로 운영되며, 딸기반은 신규농업인들을 위해 육묘, 시설관리 등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청년농업인반은 경영, 마케팅 등 농업 정착 교육으로 운영되며, 복숭아반은 대학원 과정으로 전정, 병해충 방제법 등 심화교육과 현장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고인배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실습 및 선진지 견학비율을 높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지역농업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업CEO육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캠페인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